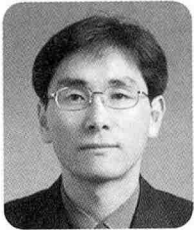


2007년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총결산과 향후 전망



하 옥 원 사무관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

1. 2007년 사업추진 성과

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재활용하여 자원화 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자원화 촉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07. 9. 28.부터 시행으로 가축분뇨의 처리는 정화처리 개념에서 퇴비·액비(液肥) 등 자원화 개념으로 전환하고, 환경과 조화시키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2) 또한 동 법률의 하위법령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농림부령 제1573호, '07. 11. 16)이 제정·시행으로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절차와 시·군단위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등이 마련되었다.

(3) '05. 9월 구성된 자연순환농업팀(4명)이 자연순환농업을 담당해 왔으나 친환경축산 기반조성과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업무의 중요성이 대내외적으로 인식되어 '07. 2. 9.일자로 전담조직인 ‘축산자원순환과’(8명)가 신설되었다.

나.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비를 '06년 341억원에서 '07년 4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늘려 지원하는 등 가축분뇨 퇴비·액비 자원화 촉진과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에 기여하였다.

(1) 개별 농가에 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는 '06년 298억원에서 '07년 367억원으로 69억원을 늘리고, 단독·공동시설 사업비의 경우 '06년

270억원에서 '07년 339억원으로 늘렸으며, 특히 '07년은 신규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100톤 규모) 5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동 자원화시설이 완공될 경우 가축분뇨 퇴비·액비 자원화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한편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유통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축산농가는 양질의 퇴비·액비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액비 유통센터 확대 지정(8개소 → 10개소), 액비저장조 지원 확대(560 → 650개소), 액비살포비 지원면적 확대(27천ha → 40천ha)하는 등 가축분뇨 유통·재활용 지원 사업비를 '06년 55억원에서 '07년 71억원으로 늘려 지원하였다. 자원화 우수 지자체 5개소(5억원) 및 우수 액비유통센터 6개소(4.8억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경쟁심을 유도하였다.

(3) 또한 친환경형 축산 지도·홍보 지원사업비도 '06년 2.1억원에서 '07년에는 4.6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위 사업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 가축분뇨 담당 공무원 연찬회 개최, 액비유통센터 담당자 교육, 퇴·액비 품평회, 시범포 운영 및 시상 등 교육·홍보도 강화하였다.

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해 '07년부터 연간 50만톤 이상 감축하여 2012년부터는 가축분뇨 발생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차별 감축계획과 투융자 계획을 마련하였다.

(1) 2011년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07년 5개소에서 '08년부터는 연간 15개 이상 설치하여 '11년까지 총 7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2) 가축분뇨 액비유통센터도 '07년 현재 59개

소에서 '12년까지 140개소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기존 농가의 분뇨처리 신규설치 및 기존시설 보완 등을 위한 시설과 액비저장조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3)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이용 촉진을 위한 조직 육성을 위하여 농·축협 등 경종·축산 조직간 협약이 '07년 현재 39개소 체결되었다. 축산농가들에 대한 해양배출 감축 교육·홍보용 포스터(840부)·팜플릿(4,400부) 및 자연순환농업 교육용 동영상(600개)을 제작·배포하였다.

(4) 현재 가축분뇨 해양배출 실태를 해양배출 정보시스템(Dumping Management System)을 통하여 온라인 상에서 시군별 또는 농가별 해양배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대책의 추진과 축산농가들의 해양배출에 대한 인식 전환 등으로 '07. 1~10월 까지 가축분뇨 해양배출 물량은 173만톤으로 전년 동기 226만톤 보다 23%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라. 가축분뇨 자원화시스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23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가축분뇨 처리의 다양화를 위하여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 가스 생산도 실증화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 '06. 12월 처음으로 가축분뇨자원화전문위원회에서 가축분뇨자원화 처리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07. 3월 23개 업체에 대한 가축분뇨처리 시스템 정보를 제공한바 있다. 금년의 경우 현재 전문가 위원회에서 평가 중에 있으며 12월중 시스템 평가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동 평가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우리나라는 현재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 가스 생산 성공사례가 없고, 경제성, 시스템 시공 및 운영기술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금년부터 3년간 농림기술개발과제로 농가 실증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동 연구결과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 2008년 사업 전망

- ◆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과 해양배출 금지 대비한 가축분뇨 육상 처리기반 구축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등 기반조성 사업 차질 없이 추진 등
- ◆ 친환경축산표준 모델 제시 및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추진
 -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마련, 친환경축산표준설계도 개발 보급 등
- ◆ 지역별 적절한 양분 공급을 위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추진
-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 퇴·액비 부숙도 판정기준 마련, 가축 마리당 액비살포 의무 확보 면적 현실화 등

가. 친환경축산 기반 조성과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를 대비한 가축분뇨 육상 처리기반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1) '11년까지 사업비를 집중 지원하여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08년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예산을 금년보다 56.5% 증액된 664억원을 편성하였으

며, 앞으로 연차별 투융자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 특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은 금년 5개소(100억원)에서 '08년 15개소(300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으며, 연말까지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08년부터는 동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사업진도 등 현장 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다.

나. 친환경축산 표준모델을 확정하여 개발·보급하고 환경친화축산농장도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1) 현재 쾌적하고 깨끗한 사육환경의 조성과 악취저감이 가능한 축사시설의 설치 등 경종농가와 연계된 표준화된 친환경축산 표준모델을 개발 중에 있다.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모델을 확정하여 '08년 제시할 계획이다.

(2) 기존에 제작·보급한 축사 및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대체하여 변화된 환경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도를 제작·보급할 계획('08년)이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9.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고시안(농림부 고시)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교육·홍보과정을 거쳐 '08년부터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다. 지역별 적절한 양분공급 유도를 위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1) 우리나라는 그동안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많이 사용하였고, 가축분뇨의 토양환원 등으로 농경지에 양분

이 과잉공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2) 현재 지역별 양분현황 파악에 필요한 작물 재배면적·비료 수요량 등을 조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마련되었다. 연말까지 시군별 기초자료를 조사한 후 양분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별 양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3) 양분이 일정수준 이상 지역은 감축목표 설정하여 이행토록 유도하고, 2~3년 단위로 지역별 양분 현황을 평가하여 감축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는 정책자금 지원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1) 가축분 퇴비는 부산물비료에 속해 있어 동일한 유기질 비료인데도 차별화되어 있어 가축분 퇴비 이용 촉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가축분 퇴비도 유기질 비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 또한 양질의 퇴비·액비 생산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퇴비·액비의 부숙도 판정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3) 축산과학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축마리당 가축분뇨 발생량 기준과 마리당 액비 살포를 위한 농경지 등 확보 의무 면적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현실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4) 액비화 기술의 개발로 1~2개월 이내 발효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액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의 6개월 동안 액비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 기준도 완화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마.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직도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08년도에도 시군 공무원 연찬회 심포지움, 시범포 경진대회, 홍보용 동영상 보완 제작·배포 등 다양한 교육·홍보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08년 예산안을 5.4억원 편성할 계획으로 있다.

가축분뇨자원화 촉진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는 정부·생산자단체·축산농가·경종농가가 함께 풀어갈 때 우리 축산업은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개념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었다. 가축분뇨에 대한 인식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가축분뇨는 자원화를 통해 얼마든지 우리농업에 있어서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선도적인 조직체를 중심으로 축산과 경종이 연계된 자연순환농업에 동참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부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의 조기 확산을 위해 꾸준하게 정책적 지원과 기술개발을 해 나갈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축산농가는 경종농가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퇴비·액비 생산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이 계속될 때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동**